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공계 페미니스트를 만나다
 - 청년여성 페미니스트로 지역에서 현실정치 하기
- 위선희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집행위원장/
여성위원회 운영위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공계 페미니스트를 만나다

- 청년여성 페미니스트로 지역에서 현실정치 하기

위선희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집행위원장/여성위원회 운영위원*



위선희 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집행위원장/여성위원회 운영위원

진행자 🗣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저를 어떻게 이런데 초대해주셨어요?” 하고 반가워 하셨는데, 지면을 통해 위선희님을 만나게 되는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듯합니다. 우선 짧게라도 직접 본인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선희 🗣 정당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위선희라고 합니다. 현재 정의당 대전시당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 정의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운영위원/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집행위원장/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 수료/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석사/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사/강원과학고등학교 졸업

수료 후, 지금은 학교를 벗어나서 정당활동가로 전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급당직자가 아닌 활동당원으로서는 정당활동가라는게 돈이 되거나 취직을 하는 직업은 아니긴 하죠. 조금 포부 있게 말씀드리자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예비 정치인’입니다.

진행자 정치인이 되고 싶은게 아니라 이미 정치인이시잖아요(하하). 오늘 인터뷰는 여러 주제에 걸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공계분야 전공자로서, 청년여성으로서, 그리고 대전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공분야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와 긴밀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공계 전공자 청년여성으로서 현실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선희 처음 도화선이 된 것은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불타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페미니즘 공부와 사회운동 참여 욕구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촛불집회로 탄핵정국이 열리면서,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정치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오면서 한국 정치가 올바르게 진보적으로 가야 페미니즘도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이전까지 정치후원금 내면 1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준다는 것도 몰랐을 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게 2차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비만 내는 정당인으로 지내면서 취업준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9년말 지역당원 모임에 나갔다가 관심 주제인 기후위기에 관해 의견을 나누면서, 기후위기를 반드시 막고 싶은데 나는 발 동동 구르지만 정치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한풀이를 했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면 당신이 직접 해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확 불타오르게 한 것 같아요.

진행자 ‘페미니즘의 대중화’라는 흐름 속에서 각성이 있었고, 이걸 직접 현실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도전적인 인식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이슈를 주변 동료들과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모임 같은 활동을 이어가셨던 것 같은데, 참여하고 계시는 활동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선희 KAIST 내에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활동회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활발하지는 못하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책을 정해서 함께 읽고 있고요. KAIST 인권주간이 진행될 때 부스를 열어 여러 가지 이벤

트를 통해 페미니즘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고 활동보다는 <페미회로>¹⁾라는 활동을 더 많이 했는데, 페미회로는 이공계 저점중심대학에서 페미니즘을 하겠다고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이공계라는 공간에서 왜 페미니즘이 필요하고, 다르게 다뤄져야 하는 가라는 질문이 먼저 던져지게 되었고, 이공계 성차별 아카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주소로 성차별 받았던 사례를 모아두고 있고,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인(in) 스템(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echanics, STE M)”이라고 이공계 페미니스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 여성들, 이 분야는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안보여서 힘든데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자’ 하는 목표 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자 ♣ STEM 분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여성 지위와 참여 확대 관련한 논의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²⁾ 프로그램 같은 이공계 여학생 전공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ESET)같은 기관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평가는 어떤지 당사자이시니 혹시 직접 제도의 효능감을 체감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선희 ♣ 위셋(WESET)의 경우 취업멘토링이나 경력단절 지원 같은 사업을 하는데, <페미회로>나 <마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어서 이런 사업을 직접 이용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ESC(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³⁾에 참여하면서 ‘젠더다양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셋 사업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은 사업을 활력 있게 해주면 좋은 것이 기존의 안전한 틀 내에서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위셋에서 경력단절 복귀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 이게 기존의 전공이나 커리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자격증을 따서 다른 직업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취직만을 목적으로 원래 전공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이공계 전공자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연계하는 것을 했어요. 그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외 전공분야 취업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경우 어떤 분은

1) 페미회로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m.facebook.com/femicircuit/>

2) WISE 프로그램은 여성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에 재능이 있는 여학생들과 여성 과학자들을 1:1 멘토링으로 연결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3) ESC에 관한 정보는 <https://www.esckorea.org/> 참조.

교수로 갈 수 있는데 하향지원 하는 경우도 있고 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위셋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진행자 🗣️ 정치참여 쪽으로 질문을 옮겨보지요. 대전은 2018년 지방선거 결과만 봐도 지방의원 여성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대전 참여자치연대에서 올해의 정치인으로 상도 받으셨네요. 지역정치에 참여하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공계 전공자로서는 경로를 이탈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쭙보겠습니다.

위선희 🗣️ 제가 그동안 여성 풋살팀에 참여했었고, 주짓수 같은 여성운동모임에서 만난 분 중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계셨어요. 같이 공 차던 친구가 구의원 이 된거죠! 그리고 대전에는 <비온 후 갬>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보슈>라고 저도 오랫동안 후원해 온 잡지를 만드는 페미니스트 문화컨텐츠 기획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만들어진 관계가 정치를 위한 네트워크라기보다 페미니스트 동료로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 어주었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존 여성운동단체인 <대전여성정치네트 워크>에서 제가 처음에 정치활동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변 반응은 경제적으로 먹고살기에 괜찮겠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시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필요한 인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년여성 중에 전업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안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성 평등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겨서 만들고 싶다, 그걸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치에 달려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다들 응원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 먹고사는 걱정은 혼자 알아서 잘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위선희 🗣️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비혼이라 홀몸이기 때문에(하하). 그리고 지금은 주거에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공계 전공 살려서 정부연구소에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선배가 제 정치활동을 응원하면서 남는 방을 내주셨거든요. 여자가 여자를 돕는다고, 감사하지요.

진행자 🗣️ KAIST가 자리잡고 있는 대전지역의 경우 2010년에도 진보정당 소속 청년여성이 선거에 출마했던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혹시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영역에 발을 들이고 나서 이공계 전공분야 관련된 활동은 어떻게 펼치고 계신지요?

위선희 🍄 연결감은 그다지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성 선배 정치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도 부실한 것 같고요. 제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치영역에서 이공계 전공분야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하면, 당 내에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과학기술위원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현재 당 내에 생태환경 부문위원회가 있다가 지금 기후위기대책본부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정당 내에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준비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한정하지 않고 더 폭넓게 과학기술분야 정책을 다른 이슈들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것은 전문가집단의 소유물이었고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민주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구조적인 것을 뜯어고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거나 그런 큰 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정당활동가 되기 전에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탈핵운동과는 다른 결의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그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지요? 소속정당의 정책적 입장과도 얼마간 간극이 있을 텐데, 어떻게 토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선희 🍄 제가 2019년에 신한울 3·4호기 재개운동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빨리 멈추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기는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면 1년에 18% 정도 경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마음이 급했던 거죠. 기후위기 막고 탈핵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나 경로에 관해 지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제가 이 논쟁을 정의당에서 꺼낼 때마다 토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원자력발전소 없이도 당장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방법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설득 당했다고 할까요. 저는 2030년까지 탄소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 정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기후위기는 계급적인 측면이 강해서,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오히려 경제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문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펼쳐 보고 싶기도 합니다.

진행자 🗣️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정치활동에 주목하고 계시니까, 최근 '이루다 사건'도 있었지만 디지털 뉴딜이나 AI 관련해서 기술이 젠더화 된 측면에 관한 문제의식이나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위선희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안그래도 최근에 ESC 젠더다양성위원회에서 '클럽하우스' 관련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개방성이나 위계 측면도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아니 이용할 수 없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고,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이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기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구축되어있지 않다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교육도 많은 부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초·중등이나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하는 논의도 공유하고 있고요.

젠더이슈 관련해서는 사실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현실 세계에서의 젠더위계가 더 줄어들어야 AI나 과학기술에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다 사건'도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현실에서 젠더위계가 사라져야 과학기술 안에서의 젠더위계도 사라질 수 있다고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야 온라인에서 개발자에게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루다 사건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나기도 했는데, 이루다 사건은 한마디로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AI의 흠결이고요. 특정 데이터셋에서 나온 대화만을 이용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대화가 아니었다는 점, 기술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특정 방향으로 러닝했다는 의혹도 없지 않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도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데, 이런 단계가 없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현실보다 더 왜곡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현실을 바꾸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큼니다.

진행자 🗣️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과 기후환경분야 관련한 청년일자리 발굴·지원 정책이 제안되고 있기도 한데요, 청년이자 과학기술에 관심있는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청년일자리가 결국 인간의 그림자 노동을 통해서 AI를 구축하는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한데요.

위선희 🗣️ 사실 기후위기 관련된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관련해서 AI를 접목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AI는 데이터셋이 10만개, 100만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이걸 먼저 잘 구축해 놓으면 러닝 시키는 것은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100만개를 누가 만들 것이냐? 그건 기계가 못해요, 희한하게도. 사실은 그래서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라고 조롱을 하잖아요. 조금은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 자리에도 20:1 경쟁률을 뚫고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방학동안 잠깐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하는데 못하고, 그래서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다 보니, 일자리 발굴로 이런 아이템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장기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장기적인 대안이 결국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고, 그 외에도 기초수급제도의 경우 연령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령제한을 풀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셋에 관해 말하면서 너무 안전하게만 하고 있다는 점, 일자리가 없으니 까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에만 그치고, 구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없으니 발굴한다는 것이 단기적인 일자리만 찾아주면 나중까지 해답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진행자 ❶ 현실정치에 참여하면서 총선에서 당내선거를 치러보셨는데, 선거에서의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위선희 ❶ 총선에서 제가 비례대표후보 한 분의 상황실장으로 일을 했어요. 선거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실장을 두었으니 힘드셨을 텐데, 그때 당시 정말 보고 듣고 배운 선거였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총선이라는게 머나먼 다른 세상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치러지는 거구나! 당내경선 선거여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알아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5개월 뒤쯤에 저도 지역에서 당내 경선을 치렀습니다. 대전시당위원장 후보로 나갔는데 참 그때 좋았어요.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여성후보가 2명, 남성후보가 1명 출마해서 어쨌든 여성후보가 남성후보보다 많다는 게 좋았고, 누가 되더라도 여성이 시당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았기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태까지 대전에서 정의당이 생기면서 시당위원장이 전부 다 남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시당위원장이 나오겠구나! 반가웠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1년밖에 활동을 안했던 신참 활동가였던 터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역시 선거에 나가야 불러주는 곳이 있다고 불러 다니면서 지금까지 제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까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하면서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뭔가 바꿔야겠다고 불타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선거하는 과정을 ‘전부 다 제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써버렸네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자 ♣ 본인이 당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신 점이 인상적이네요. 선생님께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소속 정당에는 지금도 전국단위로 주목 받는 현역의원 페미니스트 리더가 계신데, 긍정적인 영향은 혹시 있는지요? 청년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나가겠다 하는 전망을 짧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선희 ♣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중앙당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 저에게도 TV 속에서만 보는 인물들이어서, 중앙정치와 지역은 청년여성 페미니스트 정치인에게도 거리감이 있는 편이고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는 기후위기를 7년 안에 막아야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보수정당 지지자들까지 페미니스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페미니즘이 널리 보편적인 정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지정책도 무상급식 이런 이야기 하면 보수정당에서 말도 안된다고 공격했지만 지금은 거기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복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고, 누구나 다 복지에 대해서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는 논쟁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페미니즘 이슈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페미니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논쟁할 때까지 넘어가야한다. 거기가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페미니즘을 보편적인 정서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해쳐나가야 할 고비가 많겠죠. 지금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이슈화 되어있고, 근래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대중적 시위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 의제였고, 그렇게 이슈를 차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열기가 계속 이어져서 딱 5년만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함께 해야죠.

진행자 ♣ 원대한 비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려면 현실정치에 참여해야하는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더 많아져야 하겠네요. 본인도 첫발을 떼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출마정치는 유권자로서든 정당활동으로든 2030세대 여성들에게 더 많이 참여하자고 제안하는 손짓이 필요할텐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위선희 ♣ 권력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보다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충분하니까 어디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 구의원, 광역의원이라는 것도 있고, 제도 정치에 진출통로는 많아요. 본인의 정당을 갖고 출마를 하셔도 좋고 무소속으로 나오셔도 좋고, 권력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하면 더러운 것, 피해야하는 것, 나는 무소유로 살겠다, 저의 생각은 ‘안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더 위로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생기시길,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권력욕을 갖고 추구하는 분들이 내 파이만 구하자고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다양성이 풍부해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능력이 올라간다고 실제로 연구논문에서도 밝히고 있고, 이 정치라는 지형 자체가 너무나 남성 중심적입니다. 진보 정당들조차 그러다보니 여성분들이 지방선거 출마자가 적고..., 자신에게 맞는 정당을 찾아 당적을 가지고, 지역 위원장이든 뭐든 당 안에서 직책이라도 하나씩 도전해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책을 가지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해주시고 같이 만들어나가면 좋겠고, 같이 나아가면 좋겠고, 내 파이만 구하지 말고 연대를 해서 같이 나아가자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 : 젠더리뷰 기획팀

■ 진행자 :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